

정신건강서비스 영역 내 동료지원 활동 비교 연구

- 서울시 동료지원 사업 운영에의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Peer Support Activities in the Mental Health Service Area
- Focused on Deriving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Peer Support Project in Seoul -

김한별¹⁾, 나은영¹⁾, 이승연¹⁾, 손지훈²⁾, 조성준^{1,3,4)}

H.B. Kim MSW, E.Y. Na MSW, S.Y. Lee MSW, J.H. Sohn MD, Ph.D, S.J. Cho MD, Ph.D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건강 영역 내 동료지원가의 교육, 활동(직무), 운영체계, 효과성에 대해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비교하여 추후 서울시의 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정신건강 영역 내 동료지원 사업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여 국가 별 동료지원 활동(직무)의 형태 및 운영모델 등의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동료지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동료지원가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상호간의 회복과 자기개방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교육 시간은 미국 40-100시간, 영국 60시간, 한국 40시간 정도였다. 동료지원 활동(직무)에서는 주로 동료상담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였다. 동료지원 운영시스템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동료지원을 제도화하여 고용을 진행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기관에 따라 활동을 진행했고 제도화된 형태는 아니었다. 동료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미래와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재입원 감소 그리고 상호 간의 회복 지원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서울시 동료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지원의 교육과정과 운영시스템에 있어 교육 시간을 증가시키고 회복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한 카테고리보다 세분화한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지원의 보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 **주요용어** : 정신건강, 회복, 동료지원, 사용자, 사회적 지지

Abstract

- **Objective** : The study aims to review and compare articles in the mental health area about education, activities (duties), operating system, and effectiveness of peer supporters in order to set the business plan for the city of Seoul.
- **Methods** : The U.S. and the U.K., which play an advanced role in peer support projects in the mental health sector,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on such data as types and operating models of peer support activities in each country.
- **Results** : A common element in the peer support curriculum was the fact that it focuses on peer support and self-disclosure between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 The education takes about 40 to 100 hours in the U.S., 60 hours in the U.K., and 40 hours in Korea. As for the peer support activities, primarily covered are the peer consultation and support for community settlement. In terms of the operating system for peer support, some areas in the U.S. and U.K. are seeking to institutionalize the peer support to proceed and expand the recruiting. Unfortunately, in Korea, each agency has its own authority instead of any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effect of peer support, there was a positive recognition for future and recovery, a decrease in re-admission rate, and mutual support for recovery.
- **Conclusion** :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oul Peer Support Program,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ime assigned for education and operation system for peer support and to establish a curriculum that further subdivides categories such as recovery and counseling techniques. In addition, awareness and institutional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re required for the dissemination of peer support. opportunity to experience 'growth'.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3)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europsychiatry)
4)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sjcho0812@hanmail.net)

• Keyword : Mental health, Recovery, Peer support, Recipient of service, Social support

1. 서론

직업은 인간이 사회에 참여하며 사회적 지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실현과 경제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직업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황태연 등, 1998),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경제적·심리적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이순희, 2009).

그러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는 비장애인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일반적인 취업알선과 양적인 취업실적을 목표로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외부기관과의 연계보다는 직접적 사업 수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심진예 등, 2017). 즉, 일반적인 취업알선에 초점을 두다보니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기관 및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취업 서비스가 많지 않으며, 양적인 취업실적을 사업성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안정적인 고질 높은 취업형태가 아닌 특성과 맞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건강 영역 내에서 직업재활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직무 배치가 이루어지며 단순 노동직에 한정된 직업알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장혜경, 2017).

2017년 한국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2,545,637명이며 2016년 대비 1.4% 증가하였다(임예직, 2018). 이 중 정신장애인은 101,175명으로 2012년 95,424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은 100,038명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체 장애인구 2,460,080명 중 4%를 차지하고 있다(임예직, 2018).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신장애인 100,038명 중 취업자는 10,825명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평균 36.5%, 지체장애(중·경증) 45.9%, 시각장애(중·경증) 43.1%와 비교하였을 때 정신장애인은 10.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박혜원 외, 2017).

2017년 5월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분포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 38.6%, '사무종사자' 15.9%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순노무종사자'는 26.7%였으나 2017년 '단순노무종사자'는 38.6%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박혜원 외, 2017), 이는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직군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단순한 업무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임금근로자 기준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6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7시간, 평균 임금은 178만원인 것에 비해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 3년 7개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1.1시간, 평균 임금은 73만원으로 나타났다(박혜원 외, 2017). 전체 장애인에 비해 근무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의 고용에 소극적이며 구직에 대한 기회와 취업이 가능한 직종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특히, 정신질환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직무와 환경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유지 그리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이순희, 2009),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도 연계 활성화 정책 및 제도마련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하경희, 2012). 더불어 사업주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 및 인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증상의 완화 혹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모델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이후 당사자의 회복 경험담과 중단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다수가 지역사회에서 회복을 하고 있음이 알려졌다(Anthony, W. A., 1993). 이를 계기로 1990년대에 '회복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증상의 완화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삶을 중점으로 두기 시작했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 활동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MOU를 체결하고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직무 17종을 개발하였다. 그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수혜자 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고용가능성이 높은 동료지원가 직무에 초점을 두어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료지원가를 양성하여 직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8년, 총 41명의 동료지원가가 배출되었다. 신정하(2013)에 의하면 동료지원서비스는 동료지원가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적합하여 보급 및 확산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50% 이상이 '매우 그렇다'에 응답했다. 동료지원가는 당사자만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회복을 도모하는 부분에서 정신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직종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신정하, 2013).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료지원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임이 확인되었고 제도적인 자리매김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2017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과 더불어 주거, 고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영역 중 동료지원 활동을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의 동료지원 교육, 활동, 운영 시스템과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료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성 모색 및 서울시에 적합한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